

Weekly Report

하반기 엔화 약세·원화 강세 전망

○...올 하반기에는 달러 인덱스가 변동성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유로화는 당분간 보합세를 보인 후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엔화 약세, 원화 강세 등이 점쳐졌다.

KDB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김은서 선임연구원은 "올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미국장 기국채 금리 급등, 유로존 정치 리스크 등으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가운데, 유로화 약세와 엔화 강세가 나타났다"면서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 흐름과 북한 리스크 완화 등 원화 강세 요인이 엇갈리며 환보세를 보이다 2분기 말 상승했고 원/엔 환율은 1분기 상승폭을 2분기에 일부 반납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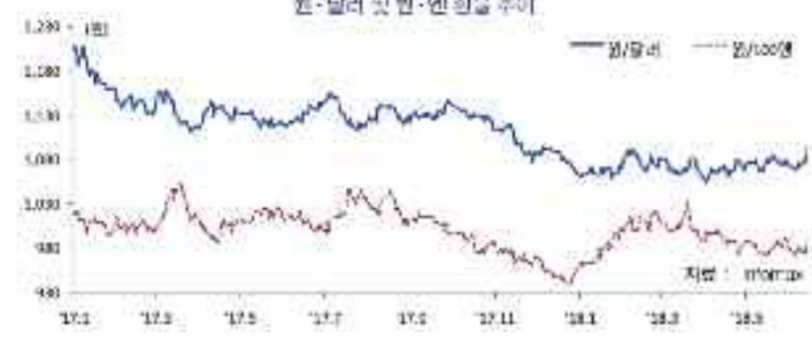
하반기엔 "달러화는 미국의 물가상승이 본격화되지 않을 경우 연말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종료와 맞물려 약세 압력이 대두될 가능성도 상존한다"면서 "유로화 강세와 엔화 약세 압력이 우세한 가운데 수시로 제기될 글로벌 무역분쟁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상단을 제한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은 재정건전성 및 경상수지 흑자 등 양호한 국내 펀더멘털과 대외지급능력 개선세 등에 힘입어 하락할 것으로 봤다. 원/엔 환율은 원화 강세 및 엔화약세로 하락하겠으나, 리스크 요인이 대두될 때마다 반등(엔화 강세)하며 전반적으로 하락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울산·경남(동남권) 지역 100대 기업의 매출액은 10년 새 1.6배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BNK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연구센터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동남권 100대 기업의 매출액은 2006년 81조원에서 2017년 132조원으로 늘어나 지난 10년 새 1.6배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서비스업 부문은 매출액이 3.5배, 건설업은 3.1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제조업 매출액은 1.4배 증가에 그쳐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부산 기업의 경우 매출액은 서비스업이 3.1배, 제조업이 1.6배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건설업 부문의 매출액이 9.2배 증가해 동남권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울산은 서비스업 매출이 6.3배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건설 기업은 100대 기업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지역의 경우 100대 기업 내 매출액이 10년 새 1.7



배 증가했으나 기업수는 7개 감소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또 2006~2017년 중 동남권 100대 기업의 생존율은 61.0%로 조사됐다. 지난 10여년간 100대 기업 중 39개사가 이탈했다는 의미이다. 지역별로는 울산 기업의 생존율이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산은 60.6%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경남의 경우 56.5%에 그쳤다.

BNK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연구센터 권민지 책임연구원은 "제조 기업의 활발한 진입과 퇴출은 제조업이 기업 생태계에서 역동성의 공간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조 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세준 기자 21ssj@

지멘스

이노베이션 투어 2018 '마무리'

지멘스 디지털팩토리 및 프로세스, 드라이브 자동화 사업부는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3회에 걸쳐 창원(6월 26일), 전주(6월 28일), 서울(7월 3일)에서 고객 대상 행사 '지멘스 이노베이션 투어(SIEMENS INNOVATION TOUR) 2018'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멘스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화는 이제 현실이 된다'라는 슬로건 아래 4차 산업혁명의 가치 중 하나인 디지털화를 위한 솔루션을 선보였다.

지멘스는 이와 관련 디자인, 기획, 엔지니어링, 생산, 서비스 등 생산을 위한 가치 사슬 5단계에 대한 총체적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둔 고유의 솔루션들을 프레젠테이션과 데모를 통해 고객에게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세션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바탕으로 둔 가상 시운전을 이용한 프로젝트 기간의 단축, TIA Portal을 기반으로 한 엔지니어링 작업의 자동화나 모션 통합 등의 통합 엔지니어링 기법, 운영 투명성을 위한 정보 통신 솔루션들을 선보였다.

또 점점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산업용 에너지 절감형 모터 솔루션과 예지 보전에 대한 솔루션까지 소개했다.

김병일 기자 kube@

DR자원의 지휘자 (2) 벽산파워

전력 수요관리 분야 '선두주자'...발전기 없는 회사 지향

벽산파워는 전력 수요관리 분야의 선두주자다.

벽산파워 최종인 대표는 전력거래소가 DR사업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업에 참여한 원년멤버다.

벽산파워는 궁극적으로 '발전기 없는 발전 회사(VPP, Virtual Power Plant)'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DR뿐 아니라, ESS, 태양광, AMI 등을 꾸준히 연구하며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벽산파워는 ESS도 2012년 국가차원에서 보급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참여했다.

벽산파워가 수요관리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글'이라는 전력 IT 기술 덕이다. 이는 스마트그리드 연동형 에너지관리시스템으로 구축 범위에 따라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 자동제어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DR뿐 아니라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벽산파워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대용량

전력사용고객을 대상으로 DR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벽산파워는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기업이 DR시장에 등장하면서 위기가 찾아왔지만 ESS를 활용한 DR을 내세워 돌고리를 마련했다.

이 사업은 수요관리자원과 ESS를 직접 연계해 추진하는 에너지신산업 모델로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 벽산파워는 해외시장 진출에도 힘쓰고 있다.

3년 전부터 미국 내 파트너사를 두고 현지시장 진출을 도모했고 캘리포니아 내 5곳에 ESS를 설치하는 성과를 얻었다.

벽산파워는 내년에는 미국시장 진출이 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

전력 IT 기술 '에너지 글'로 대용량 전력사용고객 대상 DR시장 입지 구축

해외시장 진출 '쟁걸음'...미국 캘리포니아 내 5곳 ESS 설치 성과 거둬

벽산파워는 지난달 27일 한라시멘트와 ESS 설치 사업 계약을 체결하며 ESS와 DR의 융복합을 현실화했다.

박헌기 상무는 "수수료 경쟁이 심해지면서 지난해 꽤 많은 용량의 자원을 잃은 게 사실"이라며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기보다는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ESS를 활용한 DR본

고 있다. 박 상무는 "벽산은 기술 역량이 충분하다. 벽산파워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IT를 기반으로 한 기술 기업"이라며 "ESS, AMI, DR, 태양광 등 다양한 수요관리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수련 기자 moonsr@

우강산업전기

변성기 부싱 미안마에 수출

우강산업전기(대표 이병길)는 최근 변성기용 유입 부싱을 미안마에 수출했다고 9일 밝혔다.

부싱(Bushing)은 고압측과 저압측 단자를 외부로 인출할 때 도체를 외함과 절연시키는 장치다.

이병길 우강산업전기 대표는 "미안마 최대 규모의 변압기업체 중 하나인 수량양근변압기에 변성기(CT·PT·MOF)용 부싱 300세트를 납품했다"면서 "양근변압기는 유입산 자재를 한국산으로 대체하는 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양근변압기가 앞으로 대형변압기나 송변전 자재, 스위치 및 개폐기용 지지대 등을 추가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안마 정부의 전력산업 투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된다"고



우강산업전기가 미안마에 수출하는 변성기용 부싱을 상차하고 있다.

덧붙였다.

우강산업전기는 추가로 변압기 부싱과 안전장치, 기타 부품 수출 등도 협의 중이다.

이 회사는 대용량 부싱을 비롯해 DIN(독일공업규격) 타입 일체형 부싱, 주상용 1차·2차 부싱, 산업용 특고압·저압·기타 전력용 특수 부싱을 생산하

고 있다.

최근에는 부싱 품질 관리를 위해 지지대 시험기를 도입하기도 했다. 지지대자는 전기도체를 절연하고 지지(支持)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체 절연물이다.

송세준 기자

고객이 원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력기기 (주)유진기전이 가장 빠르게, 가장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물드변압기



유입변압기

Grid of various electrical equipment including VIMAC, CTTB, ATCB, MOF, ASS, ASS, PF스물기부착형, VCB, LBS, AT.S Controller, CBS, PF, ACB, ATS, VTS, 전자식 전자 계전기, MCCB.

(주)유진기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5길 15(구의동) TEL : 02-3436-8787~90 FAX : 02-3436-7788 E-Mail : yj-7788@hanmail.net

취급 대리점

- (주)KP일렉트릭, (주)삼능, 경등중전기(주), 영화산업전기(주), (주)비츠로테크, 오성기전(주)